여야 '수해 참사 네 탓' 공방만

21대 국회, 재난 피해 방지 법안 무더기 상임위 계류

책임 소재 공방 가열… '예방책 마련 입법 미비'

국회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호우 대책'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늦장 대책으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한 수해 사고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작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에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재난 피해 방지 관련 법안 최소 29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7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3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1건 등이다.

특히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10년마다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해 대책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장마·태풍 등 피해가 발생한직후 우후죽순 발의됐지만 계절이 바뀌고 관심이 줄자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을 반복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재난 대처를 놓고 정쟁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해 참사로 사망·실종자만 50명 넘게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와 '태양광 사업' 등을 재난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인재'로 규정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재난대응 실패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여야가 수해 현장을 방문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과 별개로 원내에선 호우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사고 심각성을 고려해 오는 27일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열어 최우선 재난 대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장 최고위에서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여당은 기존 계류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법안 발의도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당정은 당초 이날 수해 복구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원 계획을 논의할 예정었으나 현장 복구가 최우선이라는 방침 하에 전날 밤 회의를 취소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주무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기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추가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피해 복구 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책임 소재 규명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둔 여야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전북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19일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북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정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환영"

민주 전북도당, "집중호우 끝난 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뤄져야"

19일 정부가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을 포함한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익산시를 포함한 12곳의 시군 단위와 읍면동 단위의 김제시 죽산면 1곳을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가오는 주말(22~23일)에도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집중 호우 기간이 끝난 이후 조사를 통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은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에서 전북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기반으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 조치"를 부탁했다.

특히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는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대응을 위해 재난대책비와 예비비를 증액한 바 있다"면서 "피해 주민 지원과 일상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방재 시설 확충에 선제적 재정 집행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해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피해 주민과 농가가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기원했다. /뉴시스

도내 야간관광 활성화 뒷받침 제도적 근거 마련

윤수봉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전라북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24일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야간관광은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가리킨다. 산업으로서의 관광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대부분이 야간관광 효과에서 비롯된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최근 야간관광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도내에서도 이미 10여년 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도를 한 바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관광시책으로 반영돼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조례안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 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과 진흥사업 추진, 야간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재훈기자

도의회 농산경위, 농작물 피해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9일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농민을 위로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농작물 피해(지난 18일 기준)는 12개 시·군 1만5,931ha(벼 10,628, 논콩 4,675, 시설원예 568, 축사 9, 기타 50.9)이며, 피해 현장 방문지인 익산시는 4,970ha의 농작물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논콩, 시설원예의 피해가 크다.

익산시 오산면, 망성면 일대를 찾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고충을 듣고 농작물 및 시설원예 수해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 1)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속한 복구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 1)은 "피해 농지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실시, 재해로 상처를 입은 농민들이 이중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기 바란다"며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료 등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에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환복위, 남원의료원 화재 복구현장 찾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9일 남원의료원을 방문, 화재 사고 복구 현장을 점검하는 등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남원의료원 현황보고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특히 지난 7월 1일 발생한 화재사고의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화재 원인 및 향후 복구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이어서 위원들은 남원의료원의 주요 시설들을 점검하고 입원 환자들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철 위원장은 "남원의료원이 동부권 유일의 종합병원이자 지역 거점 병원인 만큼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이번 남원의료원 화재 피해복구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의료원은 지난 1일 오전 0시 2분경 발화를 확인하고 1시간 20여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화하였고, 3일부터 의료원 내 응급실, 분만실 및 외래진료 등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손동규 의원과 동창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대책 마련'과 '탄소중립시대 대비 농축산분야의 실천적 접근방법'에 대해 집행부에 촉구했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9일 '진안군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시작으로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는 21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 보건소에 이어 24일 농촌경제국, 농업기술센터 25일 안전환경국 순으로 진행된다. /진안=우태만기자